

학생 건강 ‘빨간불’... 비만을 30% 육박, 시력 이상 늘었다

교육부, 2025년 학생 건강검사 읍·면 학생 비만을, 도시보다 높아 총치 비율 16.3%로 2.4%p 감소

학생 비만이 30%에 육박하며 수년째 고착화된 가운데, 시력이 나쁜 학생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이 도시보다 여전히 높아 건강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1131개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신체 발달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학생 비만을 30%... 읍·면이 더 심각**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등 전반적인 신체 발달 수준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ChatGPT로 생성한 ‘학생 건강’ 관련 이미지.

교 1학년 평균 키는 122.4cm, 4학년은 140.4cm, 중학교 1학년은 161.4cm, 고등학교 1학년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120.8cm, 4학년 139.9cm, 중학교 1학년 157.4cm, 고등학교 1학년 161.3cm로 집계됐다. 몸무게 역시 큰 변화는 없었다. 남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25.5kg, 4학년

39.2kg, 중학교 1학년 57.0kg, 고등학교 1학년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24.1kg, 4학년 36.6kg, 중학교 1학년 50.7kg, 고등학교 1학년 57.1kg으로 나타났다.

비만군(과체중+비만) 비율은 29.7%로 202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학생 비만이 33.2%로 도시지역 29.0%보다 4.2%p 높았다. 다만 지역 간 격차는 전년(4.5%p) 대비 소폭 줄었다.

◆**시력 이상 학생 58%... 전년대 증가**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시력 이상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늘었다.

반면 구강검사에서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16.30%로 전년(18.70%)보다 2.4%p 감소했다.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혈액검사에서 총콜레스테롤 17.28%, 중성지방 28.67%,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12.69%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각종 만성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력 이상 학생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는 29일부터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교육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 완화

합격 후 거주 이전 ‘예외 인정’ 적극행정 조치·제도개선 시행

#.A학생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한 뒤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입학 취소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 이이철 규제의 형식적 적용으로 학생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대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장기간 소송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대학과 학생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불편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된 점을 인식하고,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 관례가 일관되게 피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우선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입시부터 대학 합격·등록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불합리한 합격 취소 처분과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난청 보청기, 만 12세 미만 확대
기저귀·조제분유도 최대 24개월

서울시가 임신부와 영유아가정을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넓히고, 의료비 지원 한도는 높이는 방식으로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전 과정을 강화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출생 체중에 따라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선천성 이상 의료비도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됐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 연령 역시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보청기 구입 시 개당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양육 지원도 유지·확대된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7월부터 장애인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

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질환 관련 지원도 이어진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 시 특수분유 등 식이를 지원하고,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19세 미만)에게는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생아 난청 및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도 지속된다.

임산부 지원도 확대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로 120만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의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원 확대와 함께 안내를 강화해 신청 누락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기업 재정착 돕는다

‘점프업 상생금융’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27일 왕숙신도시 개발로 이전이 필요한 기업의 안정적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왕숙신도시 기업재정착 점프업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토지보상금과 기업 이전 단지 분양가 간 격차로 자금 부담을 겪는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조기 안착과 성장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주광택 시장을 비롯해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6개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참여 금융기관은 총 800억 원 규모의 협조융자를 지원해, 기업당 최대 30억 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금융지원을 통해 금리 산정의



왕숙신도시 기업이전단지 상생금융지원 협약식 모습. /남양주시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수거래 조건을 배제하는 현장 중심·기업 체감형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했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0 | 해짐 / 19:20

4월 29일(수) 음력 : 3월 13일

수도권 날씨 8 ~ 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4/20, 동두천 6/20, 가평 4/20, 파주 5/21, 서울 8/20, 양평 6/20, 용인 8/19, 수원 8/19, 평택 7/19, 인천 8/19, 백령도 9/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미국·이란 ‘버티기 모드’...경제적 부담에도 평화협상 교착
▲이란, 원유 저장량 한계...페탱크 비릇 저장 수단 총동원 /사진 뉴시스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계좌 신설...‘달러·위안·유로 받을 것’
▲아르헨티나, 영국에 ‘포클랜드 제도는 우리땅’ 도발

▲메르츠 독일 총리 “미국, 이란 지도부에 굴욕...단기간 종전 어려움”
▲아랍에미리트(UAE), 미국에 달러 통화스와프 요청